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오늘부터 수양회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각 선교회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은 꼭 꺼 주세요.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홍천 팔렬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구성실 김기성
 7/22 식 당 봉 사 : 정영선 허정호 백성래 홍춘숙 한숙경 임창선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조선환 강인숙
 다음 주 설거지 : 현우영 황영준 한기택 이종배
 새 교 우 : 박미희(7여) 최지혜(7여) 박해남(5남) 김한솔(청)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온차가 극심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 속에도 건물에만 들어가면 한기가 느껴집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네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의 기온차를 줄여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녹음이 깊어지는 이 생명의 계절에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초목이 무성하던 곳은 시멘트로 덮이고, 온갖 생명이 무리 짓던 곳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개발을 명목으로 더 이상 생명이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치는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해경	김경혜	김상근	최선미	김성공	전혜인	김승현	김수진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김최숙	김종술
박미란	노준우	문복순	최현선	민병배	문현미	박상규	박시내	박옥순
배근수	김금순	양재성	임미심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광용	형인순
이국노	김민화	이봉배	이봉옥	이은실	이한림	김명희	전영자	정선희
정현숙	조병억	조정연	조순덕	차혜심	노미향	최다미	최철수	곽권희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상경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감사헌금:

김미순	김필순	박성호	홍주희	박정호	박종현	안정현	안정현	양상철
박재란	이용현	전여민	홍성식	이유리	무명3			

녹색꿈헌금:

김문주	김준호	곽혜자	장윤지	이정우	조함미	무명1
-----	-----	-----	-----	-----	-----	-----

생일감사헌금:

김정진	박병구	김정애	송임희	한상익
-----	-----	-----	-----	-----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야외
	노순옥	박성희	이준옥	노순옥
	최희영	최경미	정복순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조병주	이명희
	정경례	진정숙	정선희	정경례
	박홍재	곽권희	배삼순	조영순
	박효선	허정운	김금순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현영	야외
	정영선	서정순	정영	홍춘숙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상처 - 씨감자

정세훈

토실토실한 감자알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씨감자가 되려면

상처를 입어야만 해
상처도 혈서를 쓰듯
새끼손가락 하나 깨물어 피만 조금 내는
그러한 조그마한 상처가 아니라

적어도 두서너 번은
성한 몸뚱이/ 온전히 절단 당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만 해

그래야만 상처 입은 몸
미련 없이 폭 썩히어
새싹을 틔우고 새 줄기를 내리고
끝내는 새 감자알을 키워 나가는

감자밭 이랑에/ 비로소 문힐 수 있는 거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아멘. 나만 진리에 속해 있다 생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릇되다 판단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차별과 편 가르기를 넘어서 대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폭풍 속의 요나 / 김재홍 목사 기도 : 윤성종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구학관 목사(볼렌더반석교회)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윤 윤 선생 문홍일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인걸 허호범 윤성종 박성실 김윤정 김현주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10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그 말이 빈말임을 자주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화려한 욕실을 꾸미고 논밭을 사들입니다. 그러니 이교도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끝이듣지 않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들 눈이 하늘 저택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땅 위에 저택들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당신네가 말한 대로 산다면 부유함을 버리고 소박한 오두막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고, 마음은 그러려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대답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판단보다 여러분에 대한 이교도들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우리를 위선자라고 비난할 때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11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몸담아 살고 있는 집을 자기 왕국인양 여깁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고 죽어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으로 착각하지요. 그들은 비싼 재목으로 지은 큰

집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밝은 색으로 집을 단장하고 최고급 가구들로 방안을 가득 채우는 데서 즐거움을 맛봅니다. 수백 년쯤 끄떡없을 자재로 집을 짓고 살면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이 잠시 땅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몸담아 살고 있는 집이 영생으로 가는 길목의 여관일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벽이나 머리 위의 지붕에서 평화와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스런 은총의 벽에 둘러싸이고 하늘로 지붕을 삼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는 선한 행실이야말로 우리의 살림살이 가구들입니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347년 로마 제국의 안티오키아에서 부유한 귀족 가문의 후예로 태어났다. 리바니우스라는 위대한 웅변가 밑에서 수사학을 공부했지만, 368년 세례를 받은 다음 성경 공부에 몰두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동굴에서 은수자 생활을 하다가 안티오키아로 돌아와 사제로 임명받았다. 그때부터 십여 년 간 설교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 389년 콘스탄티노플의 교구장이 되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탐욕으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부자들을 설교를 통해 책망하였다. 그러나 요한의 설교에 위협을 느낀 황후와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층, 성직자들에 의해 유배길에 올라 먼 길을 가던 중 60세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에게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 뜻은 ‘황금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